초·중 영재들 절반 "성적 스트레스 심각"

■ 광주일보, 광주과기원·전남대 영재반 145명 설문

광주·전남에서 '영재'로 손꼽히는 초·중학생의 절반 가량은 성적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일보가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초·중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표〉에서 드러났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과 여행"

설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47.6%(69명)가 '성적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친구관계'나 '이성문제'로 고민 중이라는 학생은 각각 12.4%(18명)와 6.9%(10명)였다. 경제적 문제(6.2%·9명)나 외모(2.8%·4명)라는 반응도 일부 나왔다.

고민을 주로 털어놓는 사람은 부모(42.1%·61명)와 친구(33.8%·49명)가 월등하게 많았다. 선생님(2.1%·3명)이나 상담소(0.7%·1명)를 찾은 학생들은 극히 적었다.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전체의 62.1%(90명)가 하루 평균 1시간 이하였고, 1시간 이상은 37.2%(54명)에 그쳤다.

성적에 대한 부담은 스트레스로 이어져, 조사대상 학생의 49.7%(72명)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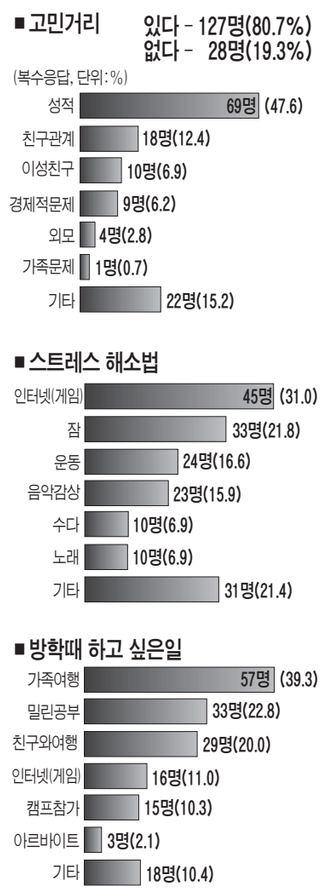
스트레스 해소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인터넷(게임)'이 31%(4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잠 22.8%(33명) ▲운동 16.6%(24명) ▲음악감상 15.9%(23명) 순이었다. 공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생도 있었으며, 애완동물이랑 놀기·먹기·혼자 욕하기·소리지르기 등 다소 특이한 방식도 나왔다.

하루 동안 인터넷 사용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70.1%(103명)가 1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독형'도 2명(1.4%) 있었다.

방학 때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은 것은 '가족과의 여행'(39.3%·57명)이었다. 그외 ▲밀린 공부 보충(22.8%·33명) ▲친구와 여행(20%·29명) ▲인터넷 게임(11%·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친구를 만나거나 무작정 쉬고 싶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분포는 ▲초등학교 5학년 3명(2.1%), 6학년 32명(22.1%) ▲중학교 1학년 37명(25.5%), 2학년 73명(50.3%) 등이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리산 피아골 대피소 22년 만에 첫 전깃불

지리산 피아골 대피소〈사진〉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깃불이 켜졌다.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 368 소재 피아골 대피소는 지리산 제2봉인 반야봉 중턱, 해발 850m 산기슭에 지난 1984년 세워진 수용인원 50명(81㎡)의 고즈넉한 산장(山莊). 지리산 종주 능선에 있는 대피소가 아닌 까닭에 이곳은 그동안 지리산 터줏대감 함태식(79) 옹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금껏 랜턴이나 촛불로 어둠을 밝혔었다.

하지만 대피소와 1천500m 떨어진 곳에 최근 이동통신사의 무인 중계탑이 들어서면서 첩첩산중의 오지(奧地)에도 전깃불이 들어왔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에 필요한 전력을 4km가량 떨어진 구례군 토지면 직전마을(30여 가구)에서 끌어오면서 대피소에까지 전력을 공급해준 것이다. 이통사들은 '피아골에서도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무인 중계탑 설치를 추진했었다.

야간 등산객 "밝아서 편안하다"
"옛 운치가 사라졌다" 아쉬움도

대피소를 관리하는 함태식 옹은 "등산객들 대부분이 '첩첩산중에도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신기하다'면서 '무엇보다 밝아서 편안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전의 추억과 운치가 사라졌다며 아쉬운 반응을 보이는 산꾼들도 많다. 노고단~직전마을, 뱀사골~피아골로 이어지는 야간산행 중 밤 늦게 버너를 켜고 밥을 짓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다.

최근 대피소를 찾은 등산객 윤모(55·광주시 동구)씨는 "산행에 지친 몸을 쉬며 랜턴과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낯선 등산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과 친구가 됐던 이곳에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 9개 대피소 중 이제 전깃불이 없는 곳은 치밭목(경남 산청군) 한 곳뿐이며, 뱀사골·연하천·세석·장터목 등은 자가발전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말 휴일 광주·전남
교통사고 잇따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오전 7시33분께 여수시 소라면 여수산단 진입로에서 박모(66)씨가 몰던 경남 모 회사 탱크로리가 뒤집혀 선박용 기름 100여ℓ가 도로에 유출됐다.

이날 오전 6시55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항 4거리에서 S기업 출퇴근 버스가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테라칸 지프 승용차 등 2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S기업 직원과 버스 기사 박모(51)씨 등 모두 2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새벽 2시40분께는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율림마을 앞 도로에서 최모(48)씨가 몰던 9t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진 강모(47)씨의 24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강씨와 강씨의 트럭을 견인하러 온 레커차 운전자 김모(55)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문·검색 강화된 광주공항

영국 히드로공항의 항공기 폭탄테러 미수 사건으로 항공 안전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광주공항도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됐다. 광주공항은 지난 11일부터 국제선(1주 : 5개 노선 왕복 34편)을 비롯한 국내선 전 노선에 대해 술·음료·물·샴푸·치약·헤어젤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액체류와 젤류 등은 위탁 수화물로 따로 짐을 꾸려야 한다. 공항공사 측은 승객들이 신고 있는 신발에 대해서도 X-레이 검색을 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공항 내에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파견, 폭발물 수색 등 청사 경계 경비에 나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형준 화순군수 적부심 기각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형준 화순군수(49)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경쟁사 인터넷 비방 광고 시정조치

쌍나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3일 광고대행사인 P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모 통신업체의 영업업무를 위탁받은 P사는 지난 1월23일부터 2월25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일부 아파트 현관입구 게시판에 경쟁업체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P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케이블 방식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의 인터넷 속도와 A/S가 부실하고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이나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를 했다"고 설명.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